

탄소중립 실현·신성장 동력 확보 정유업계 ‘블루수소’ 전환 총력전

2030년 글로벌 시장 550조 전망
국내 업계, ‘수소경제 전환’ 박차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정유사들이 탄소중립 실현과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블루수소’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정유 인프라와 기술력을 활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탈탄소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11일 시장조사업체마켓앤마켓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는 약 4110억달러(약 5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 수소 생산의 약 90%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그레이수소’다. 반면, ‘블루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친환경 수소다. 궁극적으로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하는 ‘그린수소’가 가장 친환경적이지만, 현재 기술 수준과 경제성을 고려할 때 블루수소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이에 국내 정유업계는 수소 생산부터 유통, 충전 인프라 구축까지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수소 경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 액화수소플랜트를 건설하고, 정유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수소(부생수소)를 활용해 연간 3만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인천 공장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효율을 89%까지



에스오일 울산공장 /에스오일



SK E&S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전경 /SK이노베이션 E&S

**SK이노 CCUS기술효율 89%
연간 블루수소 생산량 3.5만t**

HD현대오일뱅크

**‘수소 드림 2030 로드맵’ 실행
서산 연간 생산능력 25만t 확대**

**에스오일 ‘CCUS 2.0’ 상용화
울산공장 탄소저감율 62%로**

개선해 연간 블루수소 생산량을 3.5만 톤으로 늘렸으며, 생산원가를 kg당 2.8달러까지 낮췄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블루수소 생산원가는 kg당 2.5~3달러로, kg당 6.8달러 수준인 그린수소보다 경제성이 높다.

HD현대오일뱅크는 ‘수소드림(Dre

am) 2030 로드맵’에 따라 충남 서산시에 연간 약 20만 톤 규모의 수소 생산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수소 드림 2030 로드맵’은 HD현대 계열사들이 오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HD현대그룹의 미래 성장 전략이다.

GS칼텍스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US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화학연구원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사업 협력 및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전라남도 및 여주시와도 CCU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수산단에서 기술 연구와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유업계의 블루수소 전환이 단순한 친환경 투자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분석했다. 한 에너지 관련 연구원은 “전통적인 정유 사업만으로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지금은 블루수소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린수소까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13.8~21.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월에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을 제정해 2030년까지 소규모 실증기술, 2050년까지 대규모 실증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서부 달튼에서 열린 LX판토스 물류센터 인수 계약 체결식에서 (앞줄 왼쪽 3번째부터)해양진흥공사 윤상호 본부장, 이용호 LX판토스 대표, 피터 도세 Dossche Holdings CEO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X판토스

LX판토스, 美 조지아주 물류센터 인수

2개 동, 부지면적 축구장 43개 크기
美 물류시장 입지 강화, 추가 공략

LX판토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를 약 1700억원에 인수한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시장 추가 공략에 나선다.

LX판토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서부 달튼에서 물류센터 인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LX판토스가 인수하는 물류센터는 부지면적만 축구장 43개 크기인 30만 4769㎡(9만2193평)에 달하며, 2개 동으로 이뤄진 신축 상용물류센터다.

이번 물류센터 인수는 LX판토스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합작 투자로 진행했다.

해진공의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물류기업들이 해외 주요 거점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자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정책인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 전략’ 일환이다.

LX판토스는 신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미국 내 물류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가 물류센터의 강점을 활용해 LG

전자, 한화큐셀 등 현지 핵심 고객사를 중심으로 물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계 및 글로벌 제조사를 타겟으로 신규 고객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실제로 물류센터가 위치한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자동차, 이차전지 관련 제조사 및 협력사 등 140여 국내 기업이 진출해 있어 향후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물류 공급망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다.

조지아주는 항만(사바나항)과 철도(애플래치아터미널), 공항(애틀랜타공항) 등을 통해 미국의 물류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물류센터가 위치한 달튼(Dalton)은 미국 남부와 중동부를 연결하는 핵심 입지의 도시로 꼽힌다. 육상, 철도와 연계 시 미국 전역으로 1~2일 내 수배송이 가능하며, 인근 사바나항은 미국 4대 항만 중 성장률이 가장 빠르다.

최근 LX판토스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을 전략지역으로 설정하고 활발하게 물류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글로벌 6위 선사인 ONE(오션네트워크 익스프레스)와 합작법인 ‘박스링크스(Boxlinks)’를 설립해 미국 인터모달 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관·기업 투자 늘려야 벤처 생태계 살아”

김학균 한국VC 협회장, 기자간담회
“코스닥·벤처펀드 투자 확대 위해
관계부처에 정책적으로 건의 계획”

“기관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기관과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벤처 생태계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VC) 협회장은 1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파크나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벤처 생태계 성장을 위해 정책적인 부분은 관계부처와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코스닥, 벤처펀드에 기업과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관계부처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며 “기관과 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기관과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벤처생태계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회수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시장 확대라고 강조했다.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2018년에 민간, 금융, 정부가 함께 3000억 규모 코스닥 펀드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당시 2등 생태계를 만들어낸 바 있다. 이제는 1등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VC가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정도 펀드로 현재 코스닥이 겪고 있는 자금 경색 문제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코스닥 시가총액을 300조 원으로 봤을 때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는 0.1% 수준이다.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은 협회 내 분과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회수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김 회장은 “우수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VC가 펀드를 통해 투자한 후 투자금이 회수되고 이를 재투자하는 등 기업들은 이 같은 성공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벤처캐피탈이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에 건의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진입이 어려울 경우 코스닥 상장을 직접 키워낸 벤처캐피탈이 다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전일 회장이 추진해온 퇴직연금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퇴직연금 개념이 안정된 자산운용을 피하면서 수익률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고정관념을 깨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벤처펀드는 수익률이 좋고 위험한 대상이 아니고 안정된 투자 대상임을 설득할 수 있다면 좋은 시너지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능하면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회장은 지난 2000년 LG벤처투자(현 LB인베스트먼트)에 합류해 벤처투자업계에 입문했으며 IDG벤처스 코리아와 한화인베스트먼트, 센트럴투자파트너스(대표), 퀀텀에쿼티파트너스 코리아(대표)를 거쳐 2017년부터 현재까지 퀀텀벤처스 코리아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SK네트웍스, 웰컴과 맞손… AI사업 강화

온디바이스 AI 새 사업모델 구축 전망

SK네트웍스가 웰컴 테크놀로지스 Inc.와 손잡고 인공지능(AI) 사업 강화에 나선다.

SK네트웍스는 웰컴과 협업을 통해 본사 및 자회사 등 보유 사업에 웰컴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접목하고 AI 기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온디바이스 AI 중심의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웰컴은 SK네트웍스에 온디바이스 대형언어모델(LLM)을 지원하는 ‘웰컴 드래곤wing QCS6490’ 등 IoT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웰컴 드래곤wing QCS6490은 산업 및 상업용 IoT를 위한 고성능 SOC 솔루션으로 로봇, 드론, 게이트웨이, 태블릿, 키오스크 등 다양한 IoT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AI 연계 사업 모델을 접목 중인 SK네트웍스 특성에 맞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회사는 본사 및 자회사들의 웰컴 기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왼쪽)과 권오형 웰컴 아태지역 총괄 사장 겸 본사 수석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술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우수한 IoT 솔루션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성능과 보안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투자업계 전문가 네트워크인 하이코시스템을 기반으로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은 “글로벌 기술 전문성을 지닌 웰컴과 파트너십을 맺게 돼 AI 기업으로서 깊이와 진화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됐다”며 “SK네트웍스의 제품, 서비스에 AI를 접목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인류의 내일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